

Session 01 에베소 교회 : 첫사랑으로 돌아감 (계 2:1-7) (EPHESUS : Returning to Our First Love)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
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
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1-7)

I. 에베소 교회

- A. 에베소는 로마 시대 소아시아 수도로써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인구는 약 250,000명 정도였고 25,000석의 대중 극장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또한 지중해에서 유명한 항구로써 재정의 중심이기도 했다. 이 항구 도시는 음란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이기도 했다. 이 도시의 중심에는 제사하는 곳으로써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아데미(Diana) 신전이 있었다(127개의 대리석 기둥을 가진 130m 길이, 68m 너비, 19m 높이). 이곳은 종교와 음행이 결합된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금, 은, 동으로 만들어진 아데미 상을 집안에 우상으로 두는 것들로 인해 은장색들이 번영할 수 있었다(행 19:25).
- B.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가는 아시아의 부흥의 중심이었다(행 19:26).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곳이었다. 바울은 AD 52년, 그의 두 번째 전도여행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에베소에 처음으로 들렀다(행 18:19-21). 초기에 그는 회당에서 몇 달을 설교한 후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블로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머물렀다(행 18:24-28).
- C. 바울은 그의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에베소로 돌아왔으며(행 19-20장), 3년 동안 이곳을 그의 사역 베이스로 삼았다(행 20:31). 사람들은 복음에 강렬하게 반응하며 나아왔고, 이로 인해 우상을 팔던 시장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한때 아데미를 열심히 섬기던 자들이 예수님께 뜨겁게 헌신하며 나아왔다. 부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뜨거운 헌신으로 나아갔으며, 은 동전(드라크마) 50,000개 값에 해당하는 분량의 마술 책을 태워버릴 정도였다(행 19:13-20). 한 드라크마는 일반인의 하루 분량 임금이었다(하루 일당 100달러를 적용한다면, 5,000,000달러-6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 D. 바울은 장로들에게 예언하며, 거짓 교사들이 “이리”들과 같이 일어나서 교회를 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행 20:17-38). 바울이 떠난 후, 디모데는 사도적 리더십의 대표가 되었다(딤후 1:1-3). 약 AD 65

년경에,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베소에서 96km 떨어진 곳)에 갇히기 전까지 그곳에서 대표적 사도적 리더십으로 활동했으며,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한 그곳에서 살았다. 사도 요한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지 40년이 지난 시점 즈음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 에베소 교회는 8권의 신약 성경의 수신자였으며(요한복음,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썼다.

II.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 그분은 붙잡고 계시며, 기름 부으시며, 보호하신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계 2:1)

- A. 예수님께서서는 계시록 1:12-20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분 자신의 영광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 강조하셨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 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단어 뜻 그대로 메신저)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 1:13,16-20)

- B. 그 오른손에 일곱별을 붙잡으신 분 - 이 말씀은 교회들의 사자(메신저)나 사도적 리더십들을 도우시며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종들을 밝은 별처럼 기름 부으셔서 교회를 비추기를 원하신다. 이는 마치 촛대가 주변을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단 12:3)

- C.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오른 손에 별 또는 리더들을 붙들고 계시며, 그분은 그들을 받쳐주시며, 방향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기름 부으신다. 주의 오른손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친절의 손이시며(시 17:7), 기쁨이 충만하며(시 16:11), 축복하며(시 18:35), 권능이 있으시며(시 20:6), 영광이 있는(히 1:3) 손이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시 17:7)

- D.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분 -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며, 그분 앞에 거룩하게 서나가는 교회들을 보호하신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신 23:14)

III. 충성됨에 대한 칭찬 : 수고와 진리에 대한 인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참음)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계 2:2-3,6)

- A.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고난 받는 교회임을 알고 계셨다. 인내는 오래 참음을 뜻한다. 그들은 수 십 년의 핍박 속에서도 시종일관 충성됨을 보여 왔다.

성도들의 인내(참음)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후 12:12)

- B.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3절, 표준새번역 : 낙심한 적이 없다) - 그들은 본질적인 성경적인 메시지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이였으며, 다른 이들에게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 나왔다.
- C.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섬겨 나온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 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 6:10)

- D.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 그들은 (교리적으로/도덕적으로) 더럽히는 거짓 사역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다(고후 11:13). 교회는 이러한 일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마 18:15-18; 엡 5:11; 살후 3:6-15; 딤후 5:19-20; 디 3:10-11).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요이 10 절)

- E.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 그들은 방문하는 사역자들을 “시험”하였고 그들이 성경적인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사역자의 메시지와 삶을 시험해야 한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행 20:29-30)

- F.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 니골라당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점

1. 여기서의 니골라당은 첫 번째로, 오류에 빠진 예루살렘 집사(행 6:5)인 니골라를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 이는 초기 교부들의 공통된 관점이었다. 예로, 2세기의 이레나이우스(역자주 : 초기 교회 교부,

최초의 카톨릭 신학자)는 니골라당을 육체, 특히 부도덕함을 탐닉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던 자들이었다고 가르쳤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회개로 이끌지 않는, 도덕률 폐기론(antinomianism)이다. 이러한 죄악된 문화와의 타협을 허락하는, “은혜 안에서의 자유”에 대한 왜곡은 오늘날 교회에 만연해 있다.

2. 두 번째로, “니골라당”은 두 개의 그리스어인 “Nico(지배, 다스림)” 와 “Laos(백성)”을 음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평신도를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이 관점은 성직자를 평신도에 대해 우월한 자로 높이는 가르침, 또는 평신도와 차별되어 리더를 우월하게 높이는 가르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IV. 타협에 대한 책망 :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등한시하는 것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4)

- A.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세워나가기보다, 모든 아시아 지역을 향한 그들의 사역과 일을 세워나가는 것에 전념했다.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것이다. 연인은 언제나 일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1-13절의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와 같이 되어버렸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 B.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 그들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시작된 교회의 위대한 부흥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향한 초기의 헌신의 마음을 떠나버렸다. 섬김과 교리적 순수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 C.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망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 3:19)

V. 반응하며 나아올 것을 권고하심(경고와 함께) :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하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remember)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5)

- A. 예수님께서서는 이 교회에게 그들의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올 세 단계 과정을 주셨다 :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라.
- B.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었는지 기억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난날의 선하심과, 우리의 과거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는 떠났지만, 악을 미워하는 것에서는 떠나

지 않았다.

- C.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 그들은 자신들의 부주의에 대해 회개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삶의 비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처음 행위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에서 우리가 처음 품었던 마음을 말한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의 일이다.
- D.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 사역의 촛대는 열방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증인됨을 말한다. 등 (lamp)은 사역을 말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게 된다(마 5:15-16; 계 1:20; 2:5; 11:3-6; 속 4:2; 사 62:1(횃불, lamp); 요 5:35).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밝은 등대의 역할을 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역은 성실한 섬김과 교리적 건강함이 있을지라도 곧 그 사역의 빛을 잃고 말 것이다.
- E. 내가 네게 임하여 -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베소 교회)을 심판하심으로 징계하시기 위해 오심을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이 교회는 4세기 이후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VI. 이기는 자들을 향한 약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7)

- A.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
- B.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in the midst of Paradise of God)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14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22:2, 14)

VII.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요약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실한 섬김과,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인내함으로 인해 격려를 받았다. 어떤 이들은 이 교회가 사역에 열심히 있으며 교리적으로 건강한 신약의 교회(약 AD 30-100년 이후)를 상징한다고 본다.

VIII. 하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 :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1) 역자주 : 원 study guide에 설명이 빠져 있다. Session 09의 상급 부분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 A. 성령님께서서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첫째 계명을 첫째 자리로 회복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한 사랑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실하게 기경해나가야 한다.
- B.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 계명(선택 사항 중 첫째가 아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우선순위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최고의 라이프스타일로 보신다. 이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목적이 된다. 우리는 첫째 계명이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
- C.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상 대 계명²⁾이며, 이는 그 영향력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역동적인 수단(dynamic mean)이 된다. 연인은 언제나 일꾼보다 많은 일을 한다.
- D. 예수님과 친밀함에 기반이 없는 섬김은 우리를 탈진과 실망과 상처에 빠지게 한다. 그로 인해, 그 섬김은 수 십 년 동안 유지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이들이 사역 가운데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3-5년간 섬겨 나오다가 탈진하여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 E.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the anointing to love God)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된다. 연인이 되는 것의 상급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주요 목적 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사랑과 겸손함과 계시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만일 사역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곧 탈진하게 되며 쓴 마음을 가지게 된다.
- F.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넘치는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기경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단에 의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헌신에서 멀어진다면,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뱀(사단)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후 11:3)

- G.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탄하게 되며 적그리스도에 대해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적그리스도)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 3 ...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 15:2-3)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표준새번역 :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계 19:7)

2) 지상 대 계명 :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 지상 대 명령)

- H. 예수님을 향한 넘치는 헌신을 드리는 마음을 기경하는 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는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일이다. 사랑은 자동적으로 자라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경하지 않으면 사랑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 I. 당신이 맨 처음 넘치는 헌신으로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선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새롭게 되도록 기경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인 것을 대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치도록 드리는 헌신에 대해 그저 말로만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 J. 예수님께 자신을 진실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욱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힘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최소한만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제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하죠? 그 최소한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통해 저는 무엇을 얻을 수 있죠?”라고 묻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K.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우리도 이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해줄 수는 없다. 그녀는 이 좋은 선택을 그녀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지속해나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시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러나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42)

- L.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에 대해 더욱 성장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갈 것에 대한 지속적인 비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베다니 마리아나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또는 숙제는 우리가 사랑과 겸손 가운데 성숙해지는 것이다.
- M. 수 십 년 동안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과격한 삶의 경의이기도 하다. 우리는 단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과격하다고 할 수 없다. 다윗은 수 십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지속해나갔다.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계속해나갔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표준새번역 : 한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 N. 다니엘은 그의 기도의 삶을 수 십 년 동안 열정으로 이어나갔다(약 16살부터 82살까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BC 605-539, 또는 66년 동안)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6:10)

- O.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해나간다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같하거나 주리지 않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 2 오직 여호와의 율법(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 저 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 P. 말씀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대화를 창조해낸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거나 (pray-reading), 말씀을 읽어나가며 예수님과 대화하게 된다. 우리가 그분께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진리들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우리가 그분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진리들에 대해 순종해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 4:12)